광주·전남 아동학대 지난해 485건 이나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에서 모두 485건의 아동학대 사건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보건복지가족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0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7천83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9.8% 늘어났으며, 실제 피해아동을 보호한 건수는 5천581건으로 7.3% 증가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252건과 319건의 아동학대사례가 각각 신고됐으며 이중 237건과 248건이 실제 아동학대가 있는 것으로 인정됐다. 광주지역의 아동학대 인정비율은 무려 94%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남지역의 아동학대 인정 비율은 77.7%였다.

특히 0~17세 인구를 기준으로 1천명 당 아동학대 발생비율을 분석한 결과 광주·전남지역의 발생률은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0~17세 인구은 36만2천413명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237건 발생해 1천명 당 0.65명이 아동학대를 당해 16개 시·도에서 6번째로 아동학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9만1천447명의 아동이 거주하는 전남지역은 248건의 학대사건이 발생, 1천명 당 0.63명의 비율을 보였다. 전국적으로는 강원지역이 0.89명으로 발생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전북 0.81명, 충북 0.80명, 경북 0.73명 순이었다.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보호 사례의 79.6%가 가정 내에서 발생했으며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가 피해아동 보호 사례의 81.1%를 차지했다.

아동학대 발생빈도는 '거의 매일'이라는 답변이 50.5%였고 '2~3일에 한 번'이라는 답이 10.8%로 피해 아동 61% 이상이 최소 2~3일에 한 번씩은 학대를 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확 뚫렸네

광주시 북구 양산동 OB맥주공장 앞길에서 양산택지지구까지를 가로지르는 양산지구 진입도로가 지난달 30일 개통됐다. 이 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본촌산단 인근 지역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양산지구 진입도로 개통

본촌산단 주변 활성화 기대

착공 3년만에 준공

광주시 북구 양산지구 진입도로가 지난달 30일 개통됨으로써 박물관로와 지산로 등 본촌산단 주변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폭 20m, 4차로로 건설된 이 진입도로는 길이 2.17km로 총사업비 150억원이 투입됐으며 지난 2005년 착공, 3년여만에 준공됐다.

이 도로는 양일로 한전자재창고부터 첨단과학산업단지(1단계) 광로2-9호선(첨단로)를 연결하는 지산로를 우회하는 노선이다.

시는 양산지구 진입도로 개통에 이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시행중인 본촌산단~예술고 진입도로가 이달 말 개통될 경우 서광산 나들목 주변 교통난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양산지구 진입 도로 개통으로 본촌산단 활성화와 양산지구의 개발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대 총장 후보 4차례 토론회

선거 세부일정 확정…7·8일 후보 등록

오는 21일로 예정된 전남대학교 제18대 총장 선거 세부 일정이 확정됐다.

지난 3월27일 1차 투표에서 최종후보로 압축된 4명의 총장후보들은 오는 7~8일 이틀동안 선거후보자 등록을 한 뒤, 이때부터 2주간의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선거인명부는 14일 확정되며, 4차례 후보자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

선거는 전체 교수 1천100여명과 직원 600여명이 모두 참여하되, 직원들의 득표수는 교수 숫자의 10% 비율로 반영된다. 투표소는 전남대 용봉동 캠퍼스와 학동, 화순, 여수캠퍼스 등 4곳에 설치된다.

한편 전남대 총장선거후보선정위원회(위원장 최용국 평의원회 의장)는 간선인단 투표를 갖고 김윤수(58·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자원조경학부), 김현태(56·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 박형호(58·경영대학 경영학부), 이병택(50·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이상 가나다순) 교수 등 4명을 총장 후보로 선출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음악가 정율성 선생 유족에 허위 공문

광주 출신 음악가 정율성 선생의 중국 유족들에게 광주 방문 거부를 촉구하는 공문이 발송돼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달 23일 베이징에 살고 있는 정 선생 외손자에게 오는 4일부터 '광주시 남구에서 열리는 2008 한·중 오선지 축제에 참가하지 말라'는 팩스 한 장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광주시관광협회와 한·중문화교류회. 내용은 '광주의 많은 단체가 광주시 남구의 오선지(五線紙) 축제에 유족들이 참가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쓰여있었다. 그러나 이 공문은 허위였다.

공문의 실제 발신인은 한·중문화교류회 전 부회장이었던 정모(55)씨. 정씨는 "정 선생의 생가터를 놓고 남구청이 양림동을 계속 주장하고 있어 공문을 발송했다"고 털어놓았다. 남구청 관계자는 "악의적으로 공문을 발송한 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필상기자 kps@

전남도교위, 부교육감 교체 요구 '파문'

"교육위 활동 비협조적" 교육감에 문책요구서

전남도교육위원회가 교육위원회 활동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부교육감의 교체와 문책을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전남도교육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교육위원 9명이 전원 서명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앞으로 보낸 의견서에서 전남도교육청 김석현 부교육감을 교체해 줄 것을 요구했다.

도교육위는 이날 김장환 전남도교육감에게도 같은 내용의 문책 요구서를 제출했다. 도교육위는 의견서에서 "정부의 학교자율화 조치와 관련해 세부추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부교육감에게 2시간 면담 요구를 했으나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정년을 핑계로 면담에 응하지 않는 등 교육위원들과의 협의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석현 부교육감은 "오전에 간부회의와 학부모단체 면담이 잇달아 부득이 참석하지 못해 담당 국장에게 대신 참석을 지시하고 전남도청에서 열린 도의회 답변을 위해 출장을 갔다"며 "오해가 있는 부분은 교육위원들을 만나 풀겠다"고 해명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차량보다 보행자 우선 '안전도로 정비법' 추진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0일 차량 위주의 도로를 보행자가 우선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의 '보행자 안전도로 정비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행자 안전도로 정비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차량 통행을 금지해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행안부는 이 법의 제정을 계기로 2012년까지 1조5천150억원을 투자해 전국의 8천429개에 달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개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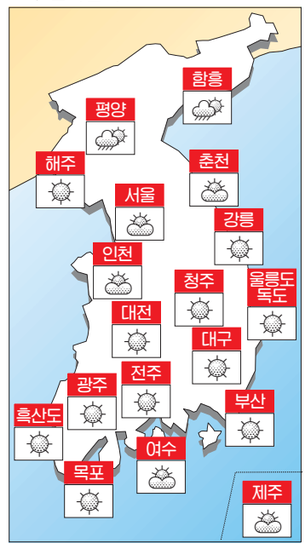
햇빛 가리세요

점차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맑겠다.

5월 1일 (음 3월 26일)

◇전국날씨

광 주	구름 조금	15~27℃
목 포	구름 조금	14~23℃
여 수	구름 많음	15~18℃
완 도	구름 많음	14~23℃
구 례	구름 조금	13~28℃
해 남	구름 많음	13~24℃
장 흥	구름 많음	12~24℃
고 흥	구름 많음	13~23℃
순 천	구름 조금	12~27℃
영 광	구름 조금	12~24℃
진 도	구름 조금	13~24℃
전 주	구름 조금	15~27℃
남 원	구름 조금	12~27℃
흑산도	구름 조금	10~16℃



서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1.0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1.5m
남해서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1.0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5m

목 포 밀물〈 10:32 23:03 썰물〈 03:39 16:24
여 수 밀물〈 05:55 18:16 썰물〈 12:09 --:--

▲해뜸 05:41 ▲해짐 19:18 ▲달뜸 02:51 ▲달짐 14:34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금)	3(토)	4(일)	5(월)	6(화)	7(수)
날 씨						
최저/최고	14/28	16/29	16/27	13/25	14/28	14/28

"U대회 실사 끝날 때까지 시청앞 천막농성 품니다"

'청소업체 직원 해고 사태' 해결 실마리 찾을지 주목

광주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온 시 청사 청소용역업체 해고 직원들이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지 선정을 위한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실사단의 광주 방문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오전 천막을 자진 철거하고 농성을 중단,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지 주목된다.

공공서비스노조 광주전남본부는 이날 "광주시와 해고 용역원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농성 장소로 사용해온 천막과 주변에 설치한 현수막을 모두 철거했다"고 밝혔다.

공공서비스노조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광주시청에서 광주시민단체협의회의 중재로 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양측은 해고용역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성실히 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청사 청소업체 해고용역원 20여명은 지난해 3월 8일 시와 용역업체간 계약만료로 일자리를 잃은 이후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왔으며 지난달 17일에는 시 청사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지난달 28일 "해고용역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야간·휴일 민원처리센터' 전남경찰청 6일부터 운영

전남지방경찰청은 오는 6일부터 전남도 내 21개 경찰서에 '야간·휴일 민원처리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각 경찰서 1층 현관 등에 '야간·휴일 민원처리센터' 데스크를 설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고발 등 68종에 달하는 민원을 365일 24시간 접수·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주민 편의에 큰 도움에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